

[보도자료] 쿠팡, 임직원으로 구성된 '와우 봉사단' 출범 지역사회 나눔 실천 나선다

2026. 10. 22.



- 임직원 등 40여 명,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 진행
- 임직원 운영위원 18명 중심으로 봉사활동 기획·운영 정기적인 봉사활동 추진

2026. 10. 22. 서울 - 쿠팡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나선다.

쿠팡은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쿠팡 와우(WOW) 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와우(WOW) 봉사단’은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사내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 온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임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봉사활동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쿠팡은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쿠팡 사회공헌실 장영철 전무를 비롯해 와우(WOW) 봉사단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 사회공헌실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봉사단 출범의 의미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쿠팡 본사가 위치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태고,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매일 출근하는 회사가 있는 동네를 직접 가꾸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작은 실천이지만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번 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와우(WOW) 봉사단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